

에세이 1차

응급구조학과

202111752

최종현

경찰들의 과잉진압 과연 정의로운 행동인가?

서론

요즘 무척이나 안전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웅처럼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다. 경찰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에 보안, 많은 범죄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준다. 다들 경찰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찰들은 친절하게 우리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모범이 된다. 이렇게 정의로운 경찰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할까? 이것에 대해 나는 생각해 보았다. 경찰들의 과잉진압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 아니면 과잉진압으로부터 나오는 정당방위나 다른 행위들은 정의로운 것일까?

본론

나는 경찰들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정의롭거나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범위가 큰 시위나 범죄의 용의자를 잡을 때 경찰들이 필수적으로 투입한다. 여기서 범위가 큰 시위를 할 때 시위대가 난폭하거나 강력하게 반항하면 진압을 한다. 이렇게 자신의 난폭해진 시위대를 저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과잉진압을 한다. 그리고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이 반항, 흉기로 위협하면 경찰들은 범인을 더 강력하게 제압한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상황에서는 자신의 경찰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법률을 보면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첫 번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있다. 이것처럼 경찰들은 시위대로 인한 더 많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신체를 보호한다. 두 번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범인을 진압하면서 수사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이다. 백인인 두 경찰이 차량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검문을 위해 차를 정지시키려고 했는데, 안전을 위해 사이렌을 키며 1분 넘게 주행한 후 밝고 넓은 주유소에 정지하였다. 경찰은 도주를 우려하여 총을 꺼내들고 접근하였고, 명령에 불복종하자 점점 경찰의 대응이 격해졌다. 경찰은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후, 차에서 끌어 내려 폭력적으로 체포하였다. 이 차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육군 소위인 흑인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의심하고 위협에 빠트리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행동일까? 이걸 아니라고 본다. 물론 미국에서는 총기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경찰들은 항상 위험한 상황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말고 미국의 경찰이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으로 무릎을 가지고 목을 눌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굳이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했던 것일까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이런 짓은 인간의 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본론2

과잉진압으로 생겨날 수 있는 정당방위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절대 있어선 안되지만 만약에 싸움이 나면 절대 먼저 도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먼저 때려서도 안되며, 침해를 방해하는 정도로만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정당방위의 예시를 보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가 끊어졌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자 여성이 혀를 깨문 것이다. 혀가 절단된 남성은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여성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신 남성을 강간치상과 감금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한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정당방위가 성립된 것이 다행인 거 같다. 이런 사례들의 정당방위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들은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며, 종종 몇몇 의 경찰들은 도적 적이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경찰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이용한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경찰들은 타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경찰로서는 너무나 실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자면 도내 경찰서 소속 A과장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하고 문자로 성희롱했다고 의혹을 받고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이고 피해 여경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한순간에 경찰에 대한 직업정신도 잃게 되고, 직장도 잃을 위기에 놓이고, 인간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게 되어버렸다.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이 한순간에 잃어 버렸다.

본론3

위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찰들이 정의롭거나 도덕적이지 못하다와 그렇다라는 주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경찰들의 과잉진압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아무리 경찰이고 자신들의 공권력을 이용한다 해도 시민들을 상대로 과잉진압을 한다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예시로 들자면 미국의 경찰이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으로 무릎을 가지고 목을 눌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과정이 정의로운 것일까? 왜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일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범위가 큰 시위를 할 때 시위대가 난폭하거나 강력하게 반항하면 진압을 하는 것이 옳음 일일지도 모른다. 즉 정의롭다고 볼 수도 있다. 경찰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될 수 있는 순간이나 용의자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총을 난사한다. 우리나라는 총을 쓸 순 없지만 시위 현장 같은 곳에서 자신의 목숨이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다. 미국을 예로 들었을 때 경찰의 과잉진압을 당해 목숨을 잃은건 안타깝지만 만약 그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과 경찰들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 위험한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다.

정당방위 또한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상해를 입혔는지와, 먼저 때리지는 않았나 살펴봐야 한다. 서로 싸우는 거 자체가 도덕적으로 어긋나지만 자기는 때리지 않고 그냥 방어만 했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시킨 것은 정의롭다고 봐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도 나는 정의로운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며 타의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앞서 본 내용과 나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하자면 위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뭐가 정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다룬 상황의 내용들을 종합해본다면 과잉진압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며,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출처] 미국 과잉진압 사건) 군인에게 최루액 사용한 경찰

작성자 우데칭 2021.11.07. 2021.11.26.

<https://blog.naver.com/dexch/222561027694>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경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여경성추행 등산가자 강요

지킬과 하이드 2021.04.28. 2021.11.26.

<https://blog.naver.com/aipsub/222326394883>

정당방위 두산백과 지식백과 2021.11.2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0319&cid=40942&categoryId=31721>

성폭행 가해자 허 절단...정당방위 인정 - KBS 뉴스 홈페이지

news.kbs.co.kr>news 2021.02.10. 2021.11.2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5490>